

담당부서 : 주택실 임대주택과

임대주택과장	김장열	02-2133-9573
신혼부부주택팀장	강윤희	02-2133-9574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서울시 올해 첫 '미리내집 567호 입주자 모집 나선다.. 4.11.(금) 모집 공고

- 신혼부부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Ⅱ) 제4차 367호 공급.. '25.4.11.(금) 입주자 모집 공고
- 지난해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1차~3차 미리내집 모집, 최대 경쟁률 328대 1 기록
- 동대문 이문 이아파크자이, 중랑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 공급, 교통 생활여건 뛰어나
- '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' 새롭게 선보여... '25.4.28.(월) 200호 입주자 모집 공고
- 7월 이후 다세대·한옥 등 '비아파트형 미리내집' 포함 공급 순차적 모집 공고 예정

-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'미리내집' 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, 올해 첫 미리내집 총 567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.
- 먼저, 제4차 미리내집(장기전세주택Ⅱ) 367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. 4.11.(금)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4.24.(목)~4.25(금)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.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,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~84㎡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.

○ 전세금은 최저 2억1천7백만원(중랑구 가현 월드움 면목 1차 48㎡), 최고 9억7천5백만원(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59㎡)으로 공급된다.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□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.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.

○ 앞서 지난해 7월, 8월, 12월 3회에 걸쳐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으며, 총 1,022호 입주자를 모집해 최대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.

<이문동(동대문구), 중화동(중랑구), 자양동(광진구) 등 15개 단지 367호 입주자 모집>

□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 아이파크자이(동대문구 이문동)는 전용면적 41㎡, 59㎡(총 212호)가 공급된다.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, 마트, 병원,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고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근에 위치한 배산임수 입지로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 다른 단지인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(중랑구 중화동) 경우, 전용면적 49㎡, 59㎡, 70㎡, 84㎡(총 11호)가 공급된다.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,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

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해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

- 그 밖에 ▲롯데캐슬 이스트폴(광진구 자양동) 57호 ▲올림픽파크포레온(강동구 둔촌동) 22호 ▲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(송파구 문정동) 18호, ▲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(관악구 봉천동) 12호 등 15개 단지, 367호에 대해서도 4.24.(목)~4.25(금)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.
- 올림픽파크포레온, 롯데캐슬 이스트폴,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지난해 제44차, 제45차 장기전세주택 I의 미계약분으로 미리내집에 대한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미리내집으로 재공급한다.
-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(www.i-sh.co.kr)을 통해 확인, 신청할 수 있다.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.
- 아울러,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선정했던 기준을 폐지한다. 출산 장려를 위해 유자녀와 무자녀 상관없이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.

<4.28.(월)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호 모집, 7월부터 비아파트 미리내집 등 릴레이 공급>

- 또한, 4.28.(월)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호를 신규 모집한다.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며,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신청

기회를 제공한다. '25.5.12.(월)~5.14.(수) 사흘간 신청 접수 예정이며,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.

○ '장기안심주택'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.

□ 오는 7월부터는 '비아파트형 미리내집'도 공급될 예정이다. 다세대·연립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, 한옥 등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미리내집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.
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지난해 미리내집을 공급한 결과, 미리내집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정책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. 올해에도 신혼부부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내집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